

안녕하십니까,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입니다.

올 여름과 초가을에는 태풍이 유난히 많이 찾아왔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 때문에 예전보다 훨씬 큰 태풍이 자주 발생할 것’이라고 하니, 태풍을 ‘천재(天災)’로만 여기기보다는 우리를 찾아오는 손님으로 여기고, 이 ‘반갑지 않은 손님’을 준비를 잘 갖추어 맞이해야 할 듯합니다.

추석을 맞으며 함께 생각해보자는 뜻에서 숲 가꾸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이 우상선생이 ‘숲을 이루고 있는 나무와 식물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를 모아 엮은 『숲에는 갈등이 없다』를 보내드립니다. 소설과 시로 연마된 저자의 문학적 상상력과 역사 기행으로 다져진 치밀함이 이 책을 탄생시켰으니, 여러분께서 큰 기대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문득 “인간도 나무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함께 어울려 즐겁게 살아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해관계가 얽혀 갈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세계입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수 천, 수 만 가지의 나무와 풀 그리고 날짐승과 들짐승들이 살아가는 숲에 가보면 이런 ‘갈등’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숲처럼 갈등이 없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집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세계 곳곳에서 ‘경제 성장을 위한 개발’ 열풍에 밀려 해마다 엄청난 숲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숲은 단순한 자연 자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숨쉬는 깨끗한 산소 공급원일 뿐 아니라 인류가 풀어야 하는 영원한 화두인 ‘갈등’의 치유방법을 일깨워주는 스승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가족, 그리고 여러분과 직간접으로 인연을 맺어온 이웃들이 모두 즐겁게 수확의 기쁨을 나누며 자연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정을 나누는 때입니다. 우리 종단도 추석의 의미와 같이 모두와 행복을 나눌 수 있도록 더욱 진력할 것입니다. 관심과 애정으로 조언하시면 더욱 큰 힘이 되어 국민 여러분에게 기쁨과 희망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 가득한 추석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불기2556(2012) 추석에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합장